

2018년 10월 3일, 제주시 연동 김영숙 씨 댁, 이효순 조사.

김영숙(여, 1929년생, 제주시 연동)

- 평양에서 태어나 6·25 전쟁 전까지 살았다. 22세에 피난 내려와서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제주에는 아들과 함께 10년 전에 내려왔다.

- 줄거리: 후처 때문에 딸 허수를 버린 아버지가 후처에게 속은 것을 알고 딸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부잣집에서 자라고 있는 딸을 찾았다. 그 딸이 새를 쫓는 대회에 나가자 허수의 아비가 두 팔을 벌리고 서서 새를 쫓아내어 딸이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데에서 허수아비라는 말이 생겼다.

[조사자] 허수아비 이야기요?

[제보자] 허수아비. 예. 허수아비는요. 어렸을 때 후모를 얻어왔대요. 후모. 계모지. 계모가 왔는데 허수를 안 볼라고 허는 거예요. 아이가 허수인데 안 볼라고 하니까. 아버지가 나무하러 가자고 업고 산으로 갔대요. 가서 산에다 놔두고선  
“나무하러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있어라.”

그러고 아버지는 나무하러 간다고 가고, 개는 거기 앉아서 놀았다는 거예요. 놀다가 아무리 해가 지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.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그냥 자꾸 날은 어두워지고 하니까 온 사방이 내려가는 길이니까 내려가는 데가 있으니까 그냥 내려간 거예요. 이 아이가.

내려가다가 보니까 불이 반짝 이렇게 보이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간 거예요. 근디 그 집에서는 그 얘기를 딸래미 쪼그마한 거니까 데려다가 거기서 데리고 집도 모른덴 다 모른덴 하니까 거기서 큰 거예요 아이가. 근데 허수 아버지는 집에 와 보니까 후모가 다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.

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‘아, 내가 속았구나 허수를 내버렸구나!’ 그러고서 그 아버지가 허수를 찾아 뎅긴 거야.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뎅기면서 찾아도 찾을 수가 있나. 어디 가서 벽혀 있는 거를 못 찾지. 그랬는데 밥을 얻어 먹으러 부잣집이니까 들어간 거예요. 그랬는데 주인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

“애, 허수야, 저기 손님 왔으니까 상 차려 드려라.”

그러니까

“예.”

하고서 상을 차리려 가니까 이쁜 처녀가 컸지. 그 처녀가 밥을 차리려 들어가서 밥을 갖다주는 거야. ‘아, 우리 허수가 컷겠구나. 우리 허수구나.’ 해서 그 동네에서 떠나질 못하고 그 동네에서만 밥을 얻어먹으러 뎅겼대요.

그 얘기가 컷는데 무슨 새 쪽는 시합이 있었대요. 그래가지고 왕들을 뽑는 거지. 말하자면, 허수가 거기 나가게 된 거예요. 새 쪽는 데를. 나갔는데 이 사람이 ‘내가 새를 못 오게 해 줘야겠다.’ 그리고 그디 가서 버티고 있었대요.

[조사자] 양손 벌리고예?

[제보자] 예. 그 모자를 쓰고 그렇게 하고서 있으니까 새가 하나도 안 가고 그 애가 뽑힌 거야. 뽑혀가지고 저기서 딸이 말하자면 승리를 했죠. 그래서 저기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허수아버지다. 그게 ‘허수아버지다’ 해 가지고 ‘허수아비’가 된 거예요. 이름이 허수아비. 그래서 지금 부른다는 건 다 허수아비라고 하잖아요.

근거가 없이 멋도 모르고 허수아비, 허수아비 하지만, 진짜 허수아비가 가서 새를 쪽아줬다는 거예요. 그래서 허수아비가 된 거예요.

- 핵심어: 허수아비, 계모, 부잣집, 딸, 허수, 시합, 새, 승리